

# 첫 비가 무서운 꼬마 구름 코코



3~6세를 위한 감성 쓱쓱 용기 동화

하늘 높이, 푹신푹신한 하얀 구름 한 마리가 살아요.  
이름은 코코예요.



커다란 동그란 눈



푹신푹신한 하얀 몸



항상 수줍게 웃는 입

다른 큰 구름들은 신나게 비를 내리며 놀지만,  
코코는 무서워 고개를 저어요.



[두려움]



“비를 내리면 아프진 않을까?  
나 사라지는 건 아닐까?”



[안심/위로]

구름 엄마가 다정하게 코코를 감싸 안으며  
말했어요.

“괜찮아, 코코야.  
비는 지구에게 주는  
따뜻한 포옹이란다.”

코코는 조심스럽게 몸을 오므렸어요.  
물방울 하나가 툭,  
나올 듯 말 듯 했어요.



[망설임]

하지만 코코는 또 다시 움찔했지요.

그때, 갈증에 지친 작은 새 한 마리가  
날아왔어요.



[놀람]



“꼬르륵, 물 좀 마실 수 있을까?”

코코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.  
메마른 땅, 목마른 꽃들, 시들한 풀들.  
코코의 마음이 찡해졌어요.



[찡함/슬픔]



메마른 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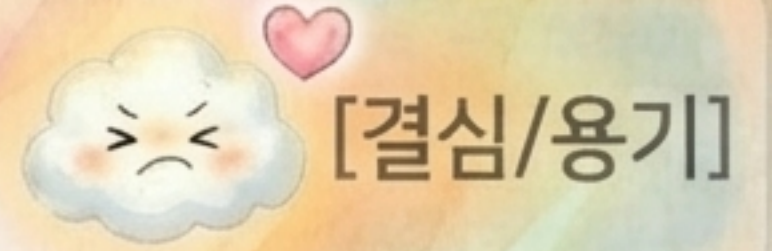


목마른 꽃들



시들한 풀들

코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.  
꼬옥, 몸에 힘을 주었어요.



**“나는 할 수 있어!  
모두를 도와줄 거야!”**

반짝이는 작은 빗방울이  
툭, 떨어졌어요.



[기대감]



말라붙은 씨앗 위에  
살며시 내려앉았지요.

씨앗이 쏙!  
초록 새싹이 돋아났어요.  
하늘에는 알록달록 무지개가 피어났어요.



[감탄]

코코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.  
“와, 비가 너무 예뻐!”

쏘옥!

코코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.  
살랑살랑 기분 좋은 비를 내리며 활짝 웃었지요.



[기쁨/행복]



“나는 세상을 적시는 행복한 구름이야!”

# 코코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?

코코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살펴봐요.



비가 무서웠어



친구들을 돕고 싶어!



비를 내리는 건 행복해!

💡 부모님 팁: 아이와 함께 코코의 표정을 따라 지어보세요.

# 코코의 용기가 만든 기적

용기를 내기 전 (가물었던 때)



용기를 낸 후 (비가 온 뒤)



##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대화

- 우리 OO이도 코코처럼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해본 적이 있나요?
- 만약 OO이가 코코라면 어떤 친구에게 비를 내려주고 싶나요?



💡 부모님/선생님 가이드: 3~6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나누며, 아이의 일상 속 작은 용기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.